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 185-198  
<https://doi.org/10.29212/mh.2021..121.18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중국과 경쟁시대, 미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Christian Brose, Hachette Book Group, 2020,  
『The Kill Chain: Defending America in the Future of  
High-Tech Warfare.』 -

최영진\*

### 1. 지는 전쟁을 하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찬 브로스(Christian Brose)는 존 매케인<sup>1)</sup> 미국 상원의원의 국가 안보 및 군사 문제 수석 참모로서 일했다.<sup>2)</sup>

---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1) 존 시드니 매케인 3세(John Sidney McCain III, 1936~2018년)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으로 하원과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바마에게 패했다. 베트남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으며, 5년 반 동안 전쟁포로로 지낸 경험이 있다. 뇌종양 투병 중 2018년 8월, 8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 2) 저자는 콜린 파월과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연설작성자와 정책 참모로 일했으며(2004-2008년), 한동안 Foreign Policy의 수석편집인을 맡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케인 상원의원과 상원 국방위원회 수석 참모로 국방부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이후 벤처 지원 방산업체인 앤두릴(Anduril) 산업에서 수석 전략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매케인이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고 한다. 중국의 위협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대표되는 테러와의 전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1년 5월 당혹스러운 미군의 철수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실패로 종결되었다. 20년간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미군과 민간군사기업의 계약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2조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2의 베트남 사태로 귀결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입해 있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흔히 ‘강대국 간의 경쟁(competition of super power)’으로 귀환한 것이다.

2017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매케인은 미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을 준비했고, 합참의장이었던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장군은 “우리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질적, 양적 경쟁에서 우위를 잃게 될 것이다.”<sup>3)</sup>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랜드 연구소에서 그해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한 가정 아래 생각할 때 미군은 그들이 싸워야 할 다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sup>4)</sup>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중국과 위게임 결과였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위게임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경우 패배했다. 이러한

3) General Joseph Dunford,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13, 2017.

4) David Ochmanek, Peter Wilson, Brenna Allen, John Speed Meyers, and Carter C. Price, U.S. Military Capabilities and Forces for a Dangerous World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7), xii.

사실은 국방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미국 국민은 말할 것없고 미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10여 년간 매케인과 함께 미국의 국방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중국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그와 매케인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도 이것이었다. 이들의 결론은 지금 미국은 ‘지는 경기를 하고 있다 (playing a losing game)’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국은 중국과 분쟁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토해내는 절박한 위기감이 단순히 경고로 끝난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중국과 같은 동급 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다. 이 책의 제목이 ‘킬체인(kill chain)’이 된 것도 저자의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 2. 플랫폼에서 킬체인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무기체계에 있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경우에 따라 앞서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극초음속(hypersonic) 미사일이다. 음속 5배로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기지들이 무력화될 것

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즉 미국의 공격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추구해왔던 접근거부(Anti Access / Aerial Denial; A2/AD)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0년이면 중국의 국민총생산량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군대를 현대화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것이다. 단순히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기체계가 더욱 첨단화되고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자율 무인 무기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주 경쟁 시대가 열렸다. 중국 2007년에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자랑스럽게 과시했다. 사이버 전력 역시 막강하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이버와 우주에서 먼저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누가 먼저 적의 신경망과 감지장치를 차단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말 그대로 중국은 동급 전력을 가진, 진정한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미국은 매년 국방비로 1조 달러의 4분의 3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sup>5)</sup> 그것은 국방비 지출순위 다음 10개국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다.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현격한 국방비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이 미국의 동급 국가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미국의 국방 기관이 미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의 건설과 대비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5)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자료: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국방기술품질원).

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방위산업을 오관하고 있으며 잘못 관리해 왔다고 지적한다.

국방에 있어 우리는 흔히 군사력의 지표가 ‘플랫폼(platform)’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플랫폼은 항공모함, 비행기, 전차와 같이 개별 차량이나 특정 선진화된 군사 장비 그리고 시스템을 말한다. 군대에서 군사력의 요구사항을 플랫폼의 측면에서 제출한다.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출에 있어서도 기준은 플랫폼이다. 군사적 역량에 대한 국가의 목표도 플랫폼에 기반해서 설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투입 요소를 결과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무기만 많으면 이길거라 생각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쟁사가 보여주고 있다. 장비가 많다고 잘 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도자들 역시 더 큰 목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처음에 우리가 왜 그러한 플랫폼을 원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구입하는 것이 군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목표는 전쟁 방지책, 즉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역량을 갖추므로써 그들이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결코 추구하지 못하도록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가? 플랫폼은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킬체인이다. 킬체인은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지만 군대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세 개의 단계가 포함된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making a decision)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taking

an action)이다. 비록 그 효과가 살상과 관련될 수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전쟁이나 전쟁 이전 단계의 군사적 대립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종류의 비폭력적이고 비살상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더 나은 이해와 결정 그리고 행동은 군대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야 그들 자신의 국민과 무고한 시민 모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플랫폼 중심의 군사력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킬체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유념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적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 무기체계에서 강조되었던 킬체인이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정보혁명에 의해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배포를 혁신했고 킬체인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군사 시스템은 이해를 촉진하고, 다른 군사 시스템이 의사 결정을 한다면, 또 다른 군사 시스템에서는 의도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시키는 대신, 군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체제로 이루어진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킬체인은 전체적인 과정과 목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킬체인은 정보 수집에서 출발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사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계기들의 사슬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군사 분야에서의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이하 ‘군사 분야의 혁명’)’이다.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방식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군사분야의 혁명은 전투 네트워크에 함께 수행되는 일종의 전투 인터넷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킬체인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킬체인이나 군사혁명의 언어를 주창하면서 미국 국방 기구는 결코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은 킬체인보다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입하는 데 여전히 주력해 왔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미국은 미군을 현대화하는 데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잘못된 방식이었다.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의존해 온 플랫폼을 약간 개선된 형태로 생산하려고 했다. 이 프로그램 중 많은 것들이 수십억 달러의 조달 실패로 귀결되었다. 일부 플랫폼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단일 전투 네트워크로 통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미군은 킬체인을 완료하는 데 있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걱정한다. 미군의 킬체인은 매우 수동적이고 선형적이며 동적이지 못하고 변화에 둔감하다. 기존의 특정 군사 시스템[예컨대 구축함]은 하나의 특정 목적[예컨대 적 잠수함 공격]을 위한 상황 이해, 의사 결정 및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예기치 않은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군사 시스템은 미군이 전쟁에서 이해를 도출하고, 상황에 대한 지식을 의사 결정으로 전환하고, 행동을 취하게 하는 수단(시스템)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훨씬 더 위급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여부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지적하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미군과 미군의 전쟁방식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왔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공군 예산은 900%나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고안해 왔다. 즉, 미군이 목표

를 달성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미군이 지금까지 싸우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거부/차단할 무기체계와 교리를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군의 전투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미군의 전통적인 플랫폼을 파괴하며, 길체인 완료 능력을 뒤흔들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개발해 왔다. 이러한 위협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다는 진단이다.

### 3.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위협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전쟁수행방식, 즉 방위전략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이 어떻게 싸울 계획인가 하는 것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부정하려는 목표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 전략보다는 방어적 전략이 더 유리하다. 군사력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다, 나쁜 일을 막기 위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가방위전략》의 입안을 도운 국방전문가 크리스 더허티(Chris Dougherty)가 ‘새로운 미국식 전쟁 방식(new American way of war)’이라고 qnf렸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미국의 전쟁 수행방식은 공세적 사고방식에서 방어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전쟁방식은 근본적으로 공격적이었다. 미국은 공격적으로 싸워왔다. 미국은 막대한 전투



력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들의 물리적 공간을 점령하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무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리고 미국의 적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기는 극도로 어려워졌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첨단 정밀 타격 무기의 대규모 개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 무기들은 미군이 군사력을 투사하는데 이용하는 대규모 기지와 플랫폼을 찾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전쟁방식에 집착한다면, 새로운 기술만으로는 미국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다.

이러한 전쟁 방식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공간에 침투하고, 그들의 영토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거부전략을 미국의 방위전략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자산,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 방식의 목표는 미군이 공격을 가하는 어떤 군대를 궤멸시킬 수 있으며, 상대가 그들의 영토를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손실을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보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오래 전투를 지속하면서 그들의 공격 지속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격이나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국식 버전일 것이다.

####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현실적이고 긴박한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저자의 주장은 개별 플랫폼과 시스템이 아닌 킬체인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기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 자체보다 군사적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전투 네트워크와 인간의 이해, 결정,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미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저자가 가장 상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소수의 대형 시스템보다 더 많은 수의 소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미래의 군사력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군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감지장치와 발사장치를 몇 개의 대형 표적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가의 시스템보다는, 미래의 군사력은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저비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보충 비용이 저렴하다면, 미국이 그것을 상실한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쟁국의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강요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공격적으로 미사일 무기고를 확장해 온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아울러 미래의 미군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플랫폼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고도의 지능형 무인 기계들을 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람은 값비싼 존재이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무기는 훨씬 더 비싸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가의 지능형 기계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또 대량으로 분실 및 교체가 가능하다. 위험한 곳에 더 적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더 나은 윤리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래의 군사력은 오늘날 많은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보다는 제한된 양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고도로 분산된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재의 미군 네트워크가 공격에 취약한 이유는 상대방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소수의 중앙 집중적 거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옛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주변에서 정보를 훨씬 적게 이동시킬 수 있고 주요 네트워크 기능을 다수의 지능형 기계에 분산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가 공격에 취약한 거대한 거점을 갖고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재구성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분산되어 있다면 경쟁국이 이를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미래의 전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간 운영자가 지능형 기계와 더 나은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군사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디지털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사력이 운영되어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드웨어였다. 쇠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드웨어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할 것은 ‘정보(information)’다. 그것은 모든 군사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확보된다. 그리

고 성공에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인공지능, 기계 자율성, 사이버 전쟁, 전자 전쟁,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Software-Defined Everything; SDE)일 것이다. 이것은 전투 중인 인간이 경쟁자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킬체인을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의 군사 하드웨어는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보는 방식과 비슷하게 고급 소프트웨어를 위한 운송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내 아이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모든 소프트웨어인 반면, 하드웨어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교체되는 저렴한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의 요체는 하나의 비싼 시스템을 다른 저렴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저가 시스템의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 플랫폼은 많은 자율적 시스템을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 즉 군사용 사물인터넷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목표는 스마트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하든지 간에 인간이 이해/결정/행동에 얼마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초점은 킬체인에 맞춰져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방위전략을 추구하려면 미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통찰은 동맹의 중요성이라 강조한다. 미국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미군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수단을 바꾼다고 해도 힘의 균형을 유리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동맹국과 협조자가 필요하다.

## 5. 미덕과 교훈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미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저자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새롭게 상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이다. 사람 중심의 전력에서 다수의 무인 자율시스템을 통합된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이나 자율 무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저자가 잘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 건설의 토대가 된 생각은 플랫폼 중심의 사고였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의 공세 전략으로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상력의 빈곤이 가져온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전쟁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렌스 프리드먼(Lawrence Freedman) 교수는 《전쟁의 미래: 역사》(2017년)에서 지난 150년간 미래의 전쟁을 예측한 것을 분석하면, 제대로 예측한 전쟁이 없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모든 나라들은 공세를 통해 4개월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전쟁 과정에 화학탄이 개발되었고 항공기와 전차가 전력화되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전격전에 힘없이 무너졌다.

미래는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미래에 확실히 유일한 점

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쟁국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들이 국방 문제에 깊이 결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책의 내용은 미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개념들, 예컨대 효과적인 킬체인, 구축과 시스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투 네트워크의 확보, 그리고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 특히 감지장치에서의 역량 강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개별적 시스템 차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수준이나 내용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개념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스템 차원에서는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상응하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첨단 미래군으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 올바른 미래군을 건설하려면 미래 전쟁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전쟁을 염려하는 이들이 꼭 참고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일독을 권한다.